

2015. 10. 30.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테마역 구상 및 실현방안 연구

선임연구위원
이 인 배

【 목 차 】

1. 철도역세권의 개발이론과 사례

- ① 철도역세권 개발 이론 1
- ② 고속철도역세권 개발실태와 테마역 사례 4
- ③ 이론과 사례의 시사점 12

2. 공주역의 테마설정 제안

- ①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현황 14
-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현황 20
- ③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 25
- ④ 공주역 관련 테마의 분석과 제안 31

3. 공주역 현황 분석과 활용 기본구상 및 추진방안

- ① 공주역사 내외부 시설과 공간분석 35
- ② 공주테마역 조성 기본구상 39
- ③ 시설배치 종합구상 42
- ④ 사업의 추진방안 45

1.

철도역세권 개발이론과 사례

1) 철도역세권의 개발이론1)

① 고속철도역의 개념과 종류

- 고속철도역은 철도승객의 승·하차, 열차의 편성, 차량의 입환 등을 위한 장소임. 이것은 교통네트워크가 시작, 집중되는 결절점으로도시의 물리적 공간임.
- 고속철도역은 열차의 도착방식에 따라 종착역, 환승역, 통과역, 개발범위를 기준으로 통합역사와 복합역사, 입지조건을 토대로 도심역과 도심외곽역으로 구분함.
- 공주역의 경우는 도착방식은 통과역이면서, 입지조건을 보면 도심에서 벗어난 농촌에 입지한 외곽역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표 1> 고속철도역의 종류

기준	종 류	세부내용과 특성	사례
도착 방식	종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도심지에 위치한 철도여행의 출발점과 종착점 • 역사성과 도시·교통기능이 종합된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의 중심지, 거점도시 교통·정보기능위주의 역세권 개발 	부산역, 광주역
	환승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 철도노선의 교차기능수행과 타교통수단 연계 • 타지역과 복합활동 형성의 시장개념 역세권의 조성 	익산역, 송정리역
	통과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의 통과, 정착성격과 기존 도시개발방식의 역사 • 도시개발과 성장잠재력 형성의 소규모 역세권 개발 	서대전역, 동대구역
개발 범위	통합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열차와 고속철도 이용을 위한 역무기능의 수행 	서대전역, 광주역,
	복합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무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의 동시 수행 	서울역, 용산역

1) 철도역세권 개발이론은 정봉현(2009, 가을호), “고속철도역의 역세권 개발실태와 발전방향”, 광주연구를 요약정리함.

② 고속철도역의 역할과 잠재력

- 고속철도역은 교통네트워크의 결절점의 의미를 넘어서 도시의 중요 공공시설이며, 지역의 산업·문화·교류의 장소로서 인식됨.
- 이에 따라 고속철도역의 역할을 이용자, 운영자, 지역사회 및 정부의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고속철도역은 철도운송의 지원, 도시활동의 지원과 종합교통센터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
- 고속철도역은 지역간·지역내 교통의 결정공간으로 각종 교통수단의 환승이 발생하고 접근성이 확보되는 도시의 기반시설이 되고 있음. 그래서 고속철도역은 정차도시의 중심적 토지이용에 부응하는 광역교통기능의 체계화가 요구되는 지역에 입지함.
- 이를 통하여 도시 중심부의 단순 교통기능은 물론 도시문화의 거점이며 지역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고속철도역의 역세권 개발은 매우 중요함.
- 이러한 고속철도역은 지역의 산업·문화·교류의 장소이며, 정차도시의 도시정비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됨.
- 공주고속철도역은 농촌지역의 철도역이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유적지구의 중심역으로서 역사문화도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과 공주, 부여, 익산 등의 문화관광산업과 교류의 장소 개발이 필요함.

<표 2> 고속철도역의 역할

주요역할	세부 종류	이용자	운영자	지역사회	정부
철도운송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기능 역할 • 열차운행기능 	통행의 편리, 안전성	수송의 원활성	효율적 열차운영	효율적 수송체계
도시활동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상징성 • 복합기능 제공 • 내외부 체재공간 제공 • 국제교통터미널의 접근 	통행의 편리성	수익증대와 시설개선	도시활동의 촉진	국제교통 연결기능
종합교통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교통수단 중심고려 • 종합교통센터화 • 도시관문역할 •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환승의 편리성과 접근성 향상	이용객 증가와 서비스 개선	교통처리의 효율,원활화	교통처리의 효율, 원활화

③ 고속철도역 역세권의 범위설정

- 고속철도 역세권은 이용세력권, 물리적 거리, 접근성, 토지이용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공간범위를 형성함.
- 역세권의 기능과 성격이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역세권의 기준을 설정하기는 곤란함, 역세권의 범위는 역세권의 형성 요인과 특징에 다르게 설정되기 때문임.
- 현행 철도관련법의 개념적 규정의 역세권의 범위는 철도부지, 직접역세권과 간접역세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역세권의 공간반경은 1km로 역과 인접한 보행으로 1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지역임
 - 간접역세권은 역 중심으로 도보기준 10분 이상 소요되거나, 1차 교통수단을 이용 접근 가능한 범위로서 공간반경은 5km미만임
- 공주역 역세권은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철도관련법에 의한 철도부지와 직접·간접역세권에 의한 개념설정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기능적 역세권 설정이 요구되고 있음.

<표 3> 고속철도역의 역세권 범위설정

구분	역세권 설정개념과 방법	연구자, 근거	설정요소	
국내	이론적	•반경 500m 영역	서울시(1990)	크기
		•통근, 통학, 기타 등 일상적인 통행목적상 지하철역 이용 통행수요의 발생권역	한봉림(1991)	잠재력
		•초·중학교의 학군, 소생활권(인구 2~3만명)	택지개발계획 실무지침(2002)	잠재력
	실험적	•통행시간 구성요소인 총통행시간, 도보시간, 대기시간, 승차시간 등의 분석지표로 설정	손정열(1993)	크기
		•역간거리 0.8 -1.1km, 도보거리 0.8km, 행정구역과 결합하여 약 1km	배준구(1982)	크기
		•도보 역세권의 크기 530m	김대웅, 유영근 최한규(2002)	크기, 잠재력
	현행법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의 실시계획으로 확정되는 노선과 역 중심의 인근지역	한국고속철도공단법	크기
		•철도 노선과 역 중심의 인근지역	국유철도운영특례법	크기
		•역 중심의 인근지역, 당해지역 교통여건 고려의 시·도지사가 승인한 역세권 개발사업의 계획지역	도시철도법	크기
외국	일본	•역세권의 형태는 정방형, 장방형으로 설정. •역사 등급을 구분하여 360m, 540m, 720m로 설정	오사카	크기, 모양
		•반경 1,400m	워싱턴	크기
	미국	•도시지역 530m, 비도시지역 800m 설정	LA	크기

②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실태와 테마역 개발사례

①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실태

■ 고속철도 정차도시의 영향

- 고속철도역의 운행은 정차도시에 교통체계, 지역경제, 지역개발 및 관광문화 부문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침.
 - 교통체계면에서 고속철도역의 통행인구가 증가하며, 역세권 개발과 도시정비 사업을 촉진시킴.
 - 지역개발 측면에서 정차도시의 접근성과 결절성의 강화는 역사주변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역세권 개발을 유도함. 이 영향은 고속철도 정차도시의 인구, 토지이용 및 교통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도시의 다양한 물리적 시설변화를 수반함.
 - 관광문화 측면에서 정차역 중심 관광권의 조성과 학술행사, 문화공연 등의 확대를 유도함
- 이에 따라 공주역은 교통과 지역개발 측면을 영향을 수용하면서 백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문화역으로서 영향을 극대화하도록 해야함.

<표 4> 고속철도 정차도시의 영향과 발전과제

부 문	세부적 영향	영향(+, -)	기 간	정차도시의 발전과제
교통 체계	• 정치역 교통수요 증가	-	단기	• 역세권의 개발 → 기존 역사 중심개발, 미개발 지 역사 개발
	• 역세권 및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	중장기	
	• 정치역 주변 교통혼잡의 가중	-	중· 단기	
	• 지역교통체계 개선사업	+	중· 단기	
지역 경제	• 물류비용 절감과 산업구조의 개편	+	중· 단기	• 교통망체계 확립 → 내 부동선, 주변 연계교통 체계, 보행교통망, 환승 센터
	• 도시특화산업의 발전, 기업유치	+	중기	
지역 개발	• 토지이용 고도화와 역세권의 개발	+	중· 장기	• 지역개발 효과전략 → 도시성장효과, 인구유입
	• 정차도시 생활·세력권의 확대	+	중기	
관광 문화	• 정치역 중심 관광권의 조성	+	중· 단기	
	• 학술행사·문화공연의 확대 유도	+		

비고: + 순영향, - 악영향 의미

■ 역세권 개발의 유형

- 역세권 개발의 유형은 철도정비, 입지 및 역사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함
 - 철도정비는 소관 중앙부처의 주도 하에 역사 및 부대시설 위주의 정비가 주로 시행되고 있음.
 -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의 입지는 도심지, 점이지역, 부도심 또는 지구 중심에서 다양하게 발생함.
 - 역세권 개발은 역사규모에 의해서 도심역사 재활형, 도심역사 확대 강화형 및 신역사 개발형 등으로 구분함.
- 공주역세권의 유형은 기존 역세권 개발유형과는 달리 신규 철도역으로서 지구 중심의 신역사 개발형의 형태로 개발이 추진되어야함.

<표 5> 철도역세권 개발의 유형

기준	기준별 세부유형	주요 특성
철도 정비	기존철도형/철도선행형	•철도 정비사업의 우선 / 시가지 기능고려 철도의 정비
	시가지정비형	•철도정비와 주변시가지, 도시정비사업의 병행
	병행형	•철도중심의 신시가지, 신도시 및 다기능 복합역사 개발
역사 입지	도심지역	•업무·판매기능의 집적, 지하시설의 배치, 대형상가 개발
	점이지역	•환승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 주변지역 보행체계 개선
	부도심지	•혼합기능의 중심지, 지역기능 특성 고려의 연계개발
	지구중심	•판매·서비스 기능강화, 배후 권역의 중심지, 연계교통의 요충
개발 형태	도심역사 재활형	•철도 위 지상·하 공간개발, 역사기능과 조화된 소규모개발
	도심역사 확대강화형	•역세권 연계의 재개발, 역사의 도시성장거점화, 중규모 개발
	신역사 개발형	•신역사의 복합개발, 지역특성 연계개발, 신기능중심 중소규모

■ 국내 역세권 개발실태

-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전철의 개통과 함께 도심역사의 확대개발, 신철도역사의 개발 등의 형태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어 왔음.
- 이러한 역세권은 시가지 정비계획 및 대도시권 도시기능의 다핵화를 유도하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해당 지방도시도 역세권을 개발하여 도시

정비와 도시개발사업을 확대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철도역 기능에 따라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를 차별화하여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역세권의 개발범위, 토지용도 및 개발용량은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통하여 설정하는 것이 양호함.
- 역세권의 개발은 통합역사의 시설과 병행하여 역세권 전반의 공간적 통합과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여 일체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임.
- 공주역세권은 기존 국내의 사례와는 달리 농촌의 정차역 관광문화형의 역사로서 기능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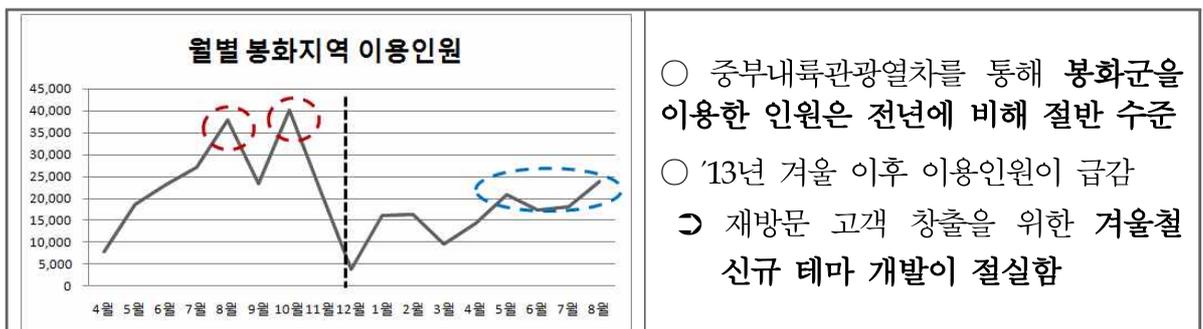
<표 6> 국내 중요 고속철도역세권 개발실태

역사명칭	대지면적 (km ²)	사업 기간	공간체계	특성	비고
서울역세권	67.8	2001-2003	백화점, 복합 상업기능	기존 역사 연계개발	핵심시설 개발형
대전역세권	876.0	-	고속철도역사와 기반시설 주택 건설과 도심활성화 지원	주택건설사업 도시정비사업	기존 도심 재개발형
광명역세권	1,955.7	2004-2008	중심상업, 테마형 산업주거단지 복합단지 및 주상복합단지	주택단지, 상업기능 도시지원시설 유보지 공공시설용지	신도시 개발형
천안아산역세권	26,249.0	2002-2016	역중심 상업/업무지구 개발	단독주택지 조성 지구 외곽부 배치	신도시 개발형

② 철도 테마역의 개발 사례

■ 봉화 분천역 산타마을 조성 운영 사례

- 추진배경 및 목적
 - 중부내륙관광열차(O·V-train) 등 관광전용열차의 출시에 따른 비수기 겨울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열차여행지로 개발



○ 추진경과(2014년)

- 봉화군 방문 실무자 면담 및 산타마을 조성 제안 - 9.24.(수)
- 경상북도 관광진흥과 방문 사업제안 및 협의 - 9.25.(목)
- 경상북도 관계자 코레일 본사 방문 실무 협의 - 9.30.(화)
- 산타마을 조성 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 - 10.17.(금)
- 산타마을 조성 관련 내부방침 수립 - 10.31.(금)
- 산타 등 각종 조형물 58종 발주(봉화군) - 11.10.(월)
- 산타열차 내·외부 장식관련 관계자 회의/장식추진 - 12.3.(수)

○ 사업개요

- 운행기간 : '14. 12. 20.(토)~ '15. 2. 15.(일), 58일간
- 장 소 : 경북 봉화군 분천역 일원
- 지자체투자유치 : 2.5억원(봉화군 1.3억원, 경상북도 1.2억원)
- 사업내용 : 산타테마역 조성, 산타열차운행,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조성 등

○ 세부사업계획

- 산타열차 운영기간 : 크리스마스 전후 1~2달로 하되, 각종 설치물 등은여객 동선, 미관, 안전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 설치
- * '14년도 운영기간 : '14.12.20.(토) ~ '15. 2. 15.(일), 58일간
- 장기 로드맵 수립에 따른 연도별 사업 확대 추진

<산타마을 구축 로드맵>

2014년(1년차)	2015년(2년차)	2016년(3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시설물 투자 등 분천역을 산타마을로 조성 · 관광열차 상품 개발 등 붐업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천역 및 주변 역, 지역으로 범위 확대 · 각종 판매점 등 상업 시설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철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로 활성화 · 크리스마스 시즌 성지로 발돋움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자체·지역과의 상생 추진



< 분천역 산타마을 조성 협의회 >

- (코레일) 산타마을 조성 기획 및 연계상품 운영 역사 및 부지 제공
- (지자체) 역 및 주변 시설물 조성 및 예산 투자
- (지역주민)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운영

- 관광전용열차를 활용한 산타열차 운행
 - : 중부내륙관광열차 O·V-train 내·외부 장식 운행
 - * (디자인) 산타를 테마로 차량 외부 이미지 부착 및 각 1량 내부 장식
 - * (승무원) 산타클로스 복장 착용 및 차내 이벤트 시행
 - : E-train 및 지역단위 임시열차 운행(약 60분~90분 체류)
 - * (지역단위) 총 87회 운행(12월 10회, 1월 77회) * 일 최대 3개열차 운행
 - * (이트레인) 총 20회 운행(12월 11회, 1월 8회)
- 산타 테마 역사 및 광장 조성 : 포토존 구성



역사 지붕을 산타마을로 표현



송전탑을 대형 굴뚝으로 표현



역사 배경의 대형 포토존(조형물 설치)



초대형 트리(7m) 2개 설치(광장)



주변 나무 및 역사 주변 LED 설치

- 산타열차 운행계획

운행 개요

- 대상열차 : 중부내륙관광열차 O·V-train
 - (디자인) 산타를 테마로 차량 외부 이미지 부착 및 각 1량 내부 장식
 - (승무원) 산타클로스 복장 착용 및 차내 이벤트 시행
- 운행기간 : '14. 12. 20.(토)~ '15. 2. 15.(일), 58일간(설 대수송 전까지)
 - * 지자체 요청에 따라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 운 영 사 : 코레일관광개발

연계 상품 운영(안)

- (자유여행) O·V-trian + 분천 자유여행(약 3시간 30분 체류)
 - * 서울(O-train, #4851)→철암(V-train, #4862)→분천 자유여행→서울(O-train, #4852)
- (패 키 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당일 및 무박상품 운영(약 60분 체류)

- 당일 : (1코스) 정암사, (2코스) 태백산, (3코스) 영월 다하누촌
- 무박 2일 : (1코스) 정동진해돋이, 레일바이크, (2코스) 덕구온천, 태백산
 - * 이외 수도권, 부산 등에 정기열차와 연계한 다양한 파생 상품 출시 중

- (임시열차) E-train 및 임시열차 운행(약 60분~90분 체류)
 - (지역단위) 총 87회 운행(12월 10회, 1월 77회) * 일 최대 3개열차 운행
 - (이트레인) 총 20회 운행(12월 11회, 1월 8회)
- (기대효과) 운송수익 약 10억원 이상, 지역생산유발 효과 약 37억원 이상

홍보 계획

- 지자체와 합동 기획 보도자료 배포
 - 행사일 취재 후 보도(문화일보,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연합뉴스 등)
 - * 12월 20일 개장식 당일 6시 내고향 취재(12.24일 보도)
- 홈페이지 별도 기획전 전시
- 소셜커머스 및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시행

■ 특광역 품금 추억마을 조성 운영 사례

- 사업기간 : 2015. 1 ~ 4. 14
 - 1차 타겟 : 4.4.토 ~ 4.14.화, 10일간
 - 관광기획 : 4월 벚꽃, 5월 청보리, 8월 봉숭아·채송화
- 사업컨셉
 - 기본방향 : 다시 찾고 싶은 역, 주민수익형 사업
 - 총사업비 : 4억원
 - 메인테마 : 품금, 추억놀이, 코스프레
 - 서브테마 : 꽃밭, 포토존, 동창회, 판매점
- 역할분담
 - 코레일 : 특광역 구내
 - 보성군 : 특광역전 ~ 추억의 거리
 - 실무협의체 : 수익사업
- 세부사업계획
 - 관광객수 : 20만명(철도 4만명, 도로 16만명)
 - * 철도 : 4~5월 2만명(1차 1만명), 8~9월 2만명
 - 수송계획 : 임시(1~2회/일) 및 정기열차 특관상품
 - * 코레일 홈페이지, 전국 협력여행사 모객 & 보성축제연계

KORAIL
품금역 추억마을 조성계획 (특광역 2단계사업)

1 추진경과

특광역 테마역 대동(2013)

역전 추억의 거리(100m)를 중심으로 **S-train 개통**(정차)

1단계 조성사업(2014)

(주테마) 품금역, 봉숭아역 (사업비) 3.5억원
 추억의 거리 연장(100m)
 옛역사재현, 품금역장, 봉숭아단지
 완속신호기, 레일바이크, 철도용품

TV특집보도 등 언론홍보 820회
 일평균 관광객 183배증(7→128명)

품금역 추억마을(2단계)

(주테마) 품금역 추억놀이 (사업비) 4억원
 주민수익형 코스프레(타일벽화, 특산품판매)
 추억놀이(운동회, 동창회, 달구지, 롤러장)
 포토존(연필올타리, 벚꽃봉숭아채송화)

상반기(45회) 2만명 유치: 벚꽃
 하반기(89회) 3만명 유치: 봉숭아채송화

2 추진방향

- 시골 간이역에 전하는 **변화희망의** 메시지: 역 구내는 우리 손(전직원동참)
- 지역상생의 창조경제 실현: 주민참여형 수익사업 제시로 실행력 강화

분천역 견학
»
업무협약
»
실무협의체구성

[보성군&지역주민/12회] [보성군&코레일/22예정] [보성군&코레일&지역주민]
- 지속가능형 관광테마 개발: '흔적(추억)' » '다시 찾고 싶은 역'
 - 단순체험(1회성)이 아닌, 관광객의 흔적을 남기는 테마로 재방문을 통한 운송수입 창출



대과제	중과제	단위과제	내용	주관
전시존 구성	도방	도자기 굽기체험장	주민참여(수익사업)	실무협의체
	옹기정원	옹기 전시장	주민참여(수익사업)	실무협의체
	물레방아	포토존 구성	물레방아, 연못	보성군
	롤러장	광장 이벤트존	주민참여(수익사업)	실무협의체
	클래식카전시 장	클래식카전시	주민참여(비수익사업)	실무협의체
추억의 거리 개발	입구정문	아치형 간판	풍금역 추억의 거리	보성군
	추억의터널	수세미, 조롱박+소원지	풍금역 추억의 거리	보성군
	특산물판매장	득량쌀 등 판매	주민참여(수익사업)	실무협의체
	먹거리장터	각종 음식매대 조성	주민참여(수익사업)	실무협의체
	달구지체험	소달구지형태	역광장~면사무소(수익사업)	실무협의체
	연계셔틀운행	꼬마기차형태	역광장~강골~수문(수익사업)	보성군
	텐트촌	숙박지조성	면사무소 주차장(수익사업)	보성군
	야경조성	간접조명	역구내~거리	보성군
	코스프레	교련복, 교복	추억의 거리연출	
참여존 구성	운동회장	명랑운동회 개최	박터치기, 줄다리기, 굴렁쇠 등	실무협의체
	풍등날리기	소원등 날리기	주민참여(수익사업)	실무협의체
추억공 연장 구성	풍금음악회	공연	재능기부 등 유치	실무협의체
	시낭송회	공연	재능기부 등 유치	실무협의체
	7080라이브	공연	재능기부 등 유치	실무협의체
	청소년합창단	공연	재능기부 등 유치	실무협의체
	플래시몹	공연	재능기부 등 유치	실무협의체

3 이론과 사례분석의 시사점

① 공주 KTX철도역에 대한 역세권 기능을 설정

■ 공주역은 백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관광역의 기능을 병행

- 공주역은 농촌외곽에 입지한 역사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중심역으로 공주·부여·익산 등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관광산업의 교류장소로 개발
- 따라서 공주역은 교통과 지역개발 측면을 수용하면서 백제권 중심의 문화관광역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역사로 육성.

■ 공주역 역세권은 대도시와 달리 새로운 개념의 직접·간접역세권을 설정

- 공주역 역세권은 농촌에 입지하므로 철도부지는 직접역세권으로 조성하고, 주변 인접지역과 광역 지역은 간접역세권으로 설정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용성을 제고

■ **공주역은 문화관광형 역사로 기능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

- 공주역세권 유형은 신규철도역으로 철도역사와 인접부지를 연계한 문화관광형의 테마와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을 추진

② **공주역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테마역명칭과 기능·시설 도입**

■ **백제문화와 세계유산의 의미를 포함하는 테마역 명칭 도입**

- 공주역의 명칭적 의미를 반영하면서 백제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홍보하면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테마역 명칭으로 재편

■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연계한 관광열차운행 추진**

- 공주·부여·익산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연계한 백투더퓨처 백제관광열차 상품을 개발하여 운행

■ **공주역사와 주변지역의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형 시설과 공간 도입**

- 공주역을 중심으로 하는 백제역사 문화관광형테마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역사내부와 외부의 부지를 활용하여 기능에 맞도록 시설과 공간을 도입

③ **해당지자체와 철도공사, 지역협의체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 **해당지자체의 정책협력과 지원사업 추진**

- 충청남도과 공주시는 현재의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역사명칭과 테마관광열차 운행, 역사내외부의 테마역사 시설과 공간의 도입 등에 재원과 제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협력과 지원사업을 추진

■ **철도공사의 공주역 시설·공간 활용과 관광열차운행 협력 지원 필요**

- 철도공사의 테마관광열차 운행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에서의 역사 내부와 주변부지의 활용에 대한 직접적 사업참여와 협력 지원사업으로 추진

■ 공주역 주변 지역주민과 관광단체, 민간기업의 사업참여 필요

- 공주역사를 테마관광역으로 개발하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관광단체와 사업자, 민간기업 등의 사업참여와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함

2. 공주역의 테마설정 제안

1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현황2)

① 등재개요

- 유산명 :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
- 대상 지역(8개소)
 - 공주(2개소):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 부여(4개소):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
 - 익산(2개소):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 등재기준
 - (ii) 특정 기간·지역 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며, 그 교류의 결과로 나타난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보여주는 유산임.
 - (iii)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에 관한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수도 입지 선정을 통해 백제의 역사를, 불교 사찰을 통해 백제의 내세관과 종교를, 성곽과 건축물의 하부구조를 통해 백제의 독특한 건축기술을,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예술미를 찾아볼 수 있음.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사라져 간 백제 문화와 역사의 뛰어난 증거임.

2) (사)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자료(2014)

- 당사국이 제시한 등재기준 (ii), (iii), (iv) 중 (ii), (iii) 충족

<p>* 등재기준(ii): 특정 기간과 문화권 내 건축이나 기술 발전, 도시 계획 등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p> <p>⇒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의 상호교류를 통해 백제가 이룩한 건축기술 발전과 불교 확산을 보여줌</p>
<p>* 등재기준(iii):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에 관한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p> <p>⇒ 수도 입지 선정, 불교 사찰, 성곽과 건축물의 하부구조,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역사, 내세관과 종교, 건축기술, 예술미를 보여주는 유산이자 백제의 역사와 문화의 특출한 증거</p>

○ 유산등재 의의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대국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기회가 될 것이며,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② 세계유산 등재현황

○ 공주(2개소):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 공산성(사적 12호) : 백제 웅진시대의 왕궁을 방어하기 위해 지은 산성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 백제가 웅진에 수도를 두었던 475년부터 부여로 천도하는 538년까지 약 63년간 왕성은 웅진성이라 불리었는데 지금의 공산성이다.성은 공주시 금성동·산성동에 걸쳐 있는 약 20만㎡ 규모의 거대한 산성이다.성체 총길이 2,660m(석성 1,925m, 토성 735m). 공산성은 토성구간과 석성구간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이 석성구간인데 처음에는 토성을 쌓았지만 나중에 여러 차례 고쳐 쌓으면서 석성으로 변화되었다. 토성은 동쪽 구역의 내·외성으로 구분된 범위에 위치한다. 이 중에서 외성 구간은 백제시대에 쌓았던 것으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공산성 대부분은 석성으로 남아 있고, 대부분 조선시대에 쌓은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백제시대에 쌓았던 석성의 흔적도 발견된다. 성곽의 현황을 통해 최초 백제시대에 토성으로 쌓았고 부분적으로 토성을 석성으로 고쳐 쌓았음을 알 수 있다. 백제 멸망 후 본격적으로 석축으로 쌓는 개축과 보축의 과정이 있었다.
 - 성곽, 왕궁지, 성안마을 유적, 기타산성내 건물지, 저장시설, 연못 등
- 송산리 고분군(사적 13호) : 무령왕릉을 비롯한 웅진시대의 왕과 왕족의 무덤

- 위치 :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번지
- 송산리고분군은 충남 공주시 금성동 송산리에 있는 웅진시대의 백제왕실의 능묘군이며, 백제 왕릉 혹은 무령왕릉이란 이름으로 널리알려져 있다. 금강의 남안에 솟아 동남쪽으로 뻗어내린 작은 구릉의 동남향 능선 8부 정도에 고분군이 위치하는데 표고 75m 내외 지점이다. 현재 벽돌무덤과 할석·괴석 등으로 만든 돌방무덤 10여 기가있는데, 지금까지 7기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재송산리고분군을 구성하고 있는 고분은 모두 7기이며, 이들 고분의분포를 보면 계곡 서쪽에는 무령왕릉과 5~6호분, 동쪽에는 1~4호분이 있다. 먼저 1~5호분은 모두 굴식 돌방무덤(횡혈식석실분)으로, 무덤 입구에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널방(현실)에 이르는 널길(연도)이 널방 동쪽 벽에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400여년 전의 찬란한 백제문화를
오늘에 되살려, 세계인과함께합니다.



◆ 백제문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1) **백제문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백제문화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돋보이며,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 해당 유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보호 및 관리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2) **백제문화의 진정성**
진정성(眞正性)이란 어떤 물건이 진품이거나 출처가 분명하고, 어떤 사상(事象)이 사실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문화유산의 존립근거로서 중요한 요소이다. 백제문화유산이 분포하고 있는 공주와 부여, 그리고 익산은 백제왕진·사비기에 왕도(王都) 또는 왕성(王城)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역사와 문화상을 증명하는 유적들이다. 특히 한 일조의 공성관련유적인 공산성과 부소산성, 익산왕궁성, 왕실의 분묘유적인 송산리왕릉군과 능산리왕릉, 익산생릉, 도성의 방비체계를 보여주는 나성과 청마산성, 청산성, 미륵산성 등의 산성유적, 당시의 융성했던 불교사상을 알 수 있는 정림사지, 왕흥사지, 능산리사지, 미륵사지, 그리고 정림사지5층석탑과 미륵사지서탑 등은 원래의 위치와 구조를 일정부분 유지하고 있어 진정성이 확인된다.

3) **완전성 조건에 대한 부합성**
완전성(完全性)은 유산이 지난 속성의 전체성이 본연성을 가능하는 척도로서, 유산의 물리적 구조 또는 중요한 특징이 양호한 상태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주·부여·익산역사유적지구는 백제시대 웅진~사비기의 왕도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왕궁사설과 조정사설, 사상적 발전을 보여주는 종교사설과 고분유적, 군사체계를 보여주는 관방유적, 도성내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건물지, 그리고 당시의 기술수준을 알 수 있는 각종 공예품들이 종합적으로 확인된다. 즉, 고대국가의 왕도로서 갖추어야 할 운영체계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전체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는 한 왕조의 물리적 도성구조 및 정신문화, 기술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완전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웅진기에서 사비기로의 계기적인 문화발전 단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공주, 부여, 익산지역 백제문화유산은 보존관리 측면에서 백제문화유산은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

◆ 세계유산 등재대상 백제역사유적지구

- 공주지역 :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 부여지역 : 사비성, 정림사지, 나성지
- 익산지역 :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어느곳을 걸어도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인 공주

◆ 공주역사유적지구

● **공산성지구** 사적 제12호



▲ 공산성 전경

백제의 왕도가 자리잡았던 공주 지역에는 왕궁이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산성과 왕실의 분묘군인 송산리고분군, 제사유적인 정지산유적, 그리고 사찰유적인 대흥사지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다. 이들 많은 문화재 가운데 4개 지구 6개의 유적이 세계유산 등재 대상 잠정목록으로 선정되었다.

● **송산리고분군지구** 사적 제13호



▲ 왕궁추성지 ▲ 공산성 토성 ▲ 언덕 및 민회루 (연사-송산성도개를 제42호)

웅진기 63년간 재위하였던 왕과 왕족의 분묘군이다. 현재 벽돌무덤과 할석·괴석 등으로 만든 돌방무덤 10여기가 있는데, 송산리고분군을 구성하고 있는 고분은 모두 7기이며, 이들 고분의 분포를 보면 계곡 서쪽에는 무령왕릉과 5~6호분, 동쪽에는 1~4호분이 있다. 먼저 1~5호분은 모두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분)으로, 무덤입구에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널방(현실)에 이르는 널길(연도)이 널방 동쪽벽에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무령왕릉 전경

▲ 무령왕 관상석 (국보 제154호) ▲ 석수 (국보 제162호) ▲ 무령왕 지리 (국보 제163호)

출처 :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리플렛

- 부여(4개소):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 백제시대 최후의 도읍인 사비의 왕궁으로 추측되는 유적과 배후산성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쌍북리)
 -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은 사비시대(538-660) 백제의 왕궁으로 부여시가지 북편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금강과 인접해있다.관북리유적은 대형건물지와 도로, 상수도, 석축, 공방을 포함한 왕궁과 관련된 다양한 유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부소산성은 평상시에는 왕궁의 정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비상시에는 대피시설로서 사용되었다. 산성의 성벽은 관측기법으로 축조되었다.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되어 산성이 백제시대에 만든 성곽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현재 백제 왕궁의 구조 대부분이 확인되었다(부여군청 홈페이지)
 - 관북리유적 : 대형건물지, 상수도시설, 저장시설, 연못, 백제시대 건물지, 도로, 석축 공방시설 등
 - 능산리고분군 : 사비시대 왕의 무덤으로 추정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5번지
 - 고분군은 3기씩 앞뒤 2열을 이루고, 여기서 북쪽 후방으로 50m의 거리를 두고 1기가 자리하고 있어 모두 7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부여 시가지를 둘러싼 나성의 동쪽 부분 바로 밖에 위치한다. 최근 고분군 서쪽에서 절터가 발굴되어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와 567년 제작된 석제사리감(국보 제288호)이 출토되었는데, 이로 인해 능산리고분군이 사비시대의 백제왕실 무덤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었다.((사)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 정림사지 : 사비시대 도읍의 중심에 있었던 사찰로 국보 제9호 정림사지5층 석탑이 있음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번지
 - 정림사지지구는 정림사지(定林寺址)를 비롯해 그 주변에 자리한 쌍북리가마터를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관북리 부소산성지구의 바로 남쪽이자 부여 읍내의 한가운데에 해당되는 곳이다. 정림사지(定林寺址)는 부여읍내의 한가운데, 관북리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정림사지지구는 이러한 정림사지를 비롯해 그 주변에 자리한 쌍북리가마터를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사비시대 수도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찰은 단연 정림사였다. 정림사지에 우뚝 서있는 석탑 표면에는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전승기념의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 백

제 왕조의 명운과 직결된 상징적인 공간으로 정립사가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 정립사지 5층석탑(국보 제9호)

● 나성 : 사비시대 수도 방어 목적으로 지금의 부여읍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번지

- 부여의 서편과 남편은 금강이 자연적인 방어시설로 기능하였고 자연제방이 성벽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하지만 동쪽의 경우 산지 사이로 평지가 분포하므로 인공적인 시설물이 필요하였다. 나성은 고고학적조사 결과 총 6.3km의 구간이 확인되었다. 나성은 북나성과 동나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나성은 부여 북단에 자리한 부소산성에서 시작하여, 동으로 청산성의 외곽을 돌아 석목리에 이른다. 동나성은 석목리에서 염창리까지이다. 북나성은 백제 멸망 후 그 기능을 상실하여 현재 육안으로 성벽이 확인되는 구간은 많지가 않다. 그렇지만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성벽이 고고학적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면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나성은 현재도 그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20여 년간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축조 시기, 성벽의 축조기법, 문지를 비롯한 시설물 등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익산(2개소):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 왕궁리 유적 : 수도 사비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별궁유적

- 위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산80-1번지 외, 금마면 동고도리 1109-8외

- 왕궁리유적은 백제 왕실이 수도 사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별궁 유적이다. 용화산에서 시작하는 능선의 말단부에 형성된 낮은 구릉 위에 만들어졌다. 높은 곳은 깎아 내고, 낮은 곳은 성토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왕궁이 들어설 공간을 마련하였다. 담장이 들어설 지점은 바깥쪽을 경사지게 깎아내서 왕궁 내부가 담장 바깥보다 3-4m 이상 높게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공간 조성은 중앙부를 높게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높은 대지 위에 만들어진 건물이 궁장 밖에서 보면 더욱 장엄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왕궁리 유적은 1976년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그 전모가 확인되었다. 백제시대 왕궁관련 시설, 금과 유리 등을 생산하는 공방시설, 사찰로 구성되어 있다. 왕궁관련 시설은 장방형의 석축 궁장을 비롯하여 동서석축, 총 33기의 건물지이다. 특히 정전으로 추정되는 대형건물지

가 발견되어 백제 왕궁 구조 및 공간구획의 원리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이 건물지는 부여의 관북리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규모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왕궁은 뒤에 그 기능이 사찰로 바뀌었는데, 사찰로 기능이 바뀌는 시기에 대해선 백제 말기(7세기 중엽)~통일신라 초기(7세기 후엽)라는 이견이 존재한다. 현재 남아있는 오층석탑이 이를 보여준다.

- 궁장(宮牆), 석축(石築), 대형 건물지, 와적기단 건물지, 정원(庭園), 공방과 생활관련 시설, 사찰관련 시설

1400여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백제인의 숨결 가득한 부여

◆ 부여역사유적지구

● 정림사지지구

백제의 가장대표적인 사찰중에 하나가 정림사지다. 정림사지(定林寺址)는 부여읍내의 한가운데, 관북 리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정림사지지구는 이러한 정림사지를 비롯 해 그 주변에 자리한 생북리 가마터를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 정림사지



▲ 정림사명 와편



▲ 정림사지전경



▲ 정림사지 5층 석탑

● 사비성

사비성(부소산성)은 부여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백제의 왕궁과 왕궁 관련시설, 그리고 그 배후시설이 자리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사비성에서는 백제의 대형건물지, 공방과 저장시설, 연지, 수부명, 5부명, 명문화 등이 발견되었다.



▲ 사비성 전경



▲ 사비성의 연못

● 나성지구

나성은 도읍지 전체를 에워싼 성곽으로 나성은 방어와 구별의 목적으로 성안쪽 사람과 바깥사람을 구별하고, 산사람과 죽은 사람의 공간을 구별하는 것이 나성이다. 백제시대 고분이나 성벽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나성 지구는 나성과 나성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능산리고분군, 나성과 능산리고분군 사이에 자리한 능산리사지 등으로 되어있다.



▲ 나성 전경(나성지구)



▲ 농사 석조사리(나성지구)



▲ 백제금동대향로(나성지구)

선화공주의 이야기속에서 무왕의 광대한 꿈을 만난 익산

◆ 익산역사유적지구

● 미륵사지 (사적 제150호)

1980년부터 17년간의 발굴조사에서 백제시대 유물을 포함 약2만 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진정성을 보여 주었다. 가람구조는 탑과 불전을 3곳에 배치하고 주변을 회랑으로 구획한 삼원병치(三院並置) 형식이 완전한 형태로 발굴되었다.

중화산(현미륵산) 자락에 건립한 삼원병치의 배치형식은 미륵삼존이 중화봉리수 아래에 하생(상좌)하는 모습을 가람으로 구상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탁월한 백제문화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다.



▲ 미륵사지 전경



▲ 출토된 사리장엄구



▲ 동탑지 출토 금동공탁



▲ 미륵사지 출토 녹유연등

● 왕궁리유적 (사적 제403호)

왕궁리유적은 발굴조사에서 남북 492m, 동서234m, 폭3m 규모인 궁성이 확인되었다. 이안에서는 대형 건물지 · 정원시설 · 후원시설 · 공방 시설 · 환수구시설 등이 남아 있다. 그리고 토기 · 기와 · 유리나 금제품과 도가니등 4,000 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기외중에는 '수부(首府)'라고 인각된 명문화가 출토되어 백제왕궁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 왕궁리유적 전경



▲ 왕궁리유적 출토 토기류



▲ 왕궁리유적출토 금동사리장엄구

출처 :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리플렛

- 미륵사지 : 백제 무왕때 건립된 국가사찰로 동아시아 최대 규모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번지
- 백제 사찰로는 이례적으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미륵사 창건 설화가 전한다. 즉 무왕 부부가 사자사(師子寺)에 가던 도중 용화산 밑의 연못에서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나타났는데, 왕비의 부탁에 따라 이 연못을 메우고 세 곳에 탑과 금당, 회랑을 세웠다고 한다. 이 설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선 미륵사가 백제의 국력을 모은 국가적 가람이었고, 습지를 매립하여 평지를 조성하였으며, 미래의 부처인 미륵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 번의 설법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제한다는 불교경전의 내용에 따라 가람배치를 구현했다는 점이다. 이들 사항은 1974년부터 이어진 23년간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사찰의 창건 연대는 무왕 재위기인 7세기 초이고,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전후하여 폐사(廢寺)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현황³⁾

① 등재개요

- 세계문화유산 등재 의의
 - 세계유산은 여러 면에서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국가와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맥락을 보여주는 문화적 가치, 교육·학문적 가치, 상품개발 및 디자인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음.
 -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지혜를 얻는 자원으로서의 가치, 레저에의 활용가치, 문화유산 그 자체의 미적인 가치 등을 가지고 있음.

②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황

-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황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은 선사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세시대, 근대시대, 현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백제유적의 시기를 고려하여 연대별 건수를 보면 다음과 같음.

3) 임근욱 외(2007) 관광과 세계문화유산, 새로미에서 요약정리.

<표 7> 세계문화유산 등재 연대별 건수

시대	중남미와 카리브해	아랍국가	아시아와 태평양	아프리카	유럽과 북미	계
선사시대 (250만년전~ BC 7C)	5	13	10	7	41	76
고대시대 (BC 6C~ AD 5C)	9	18	31	2	49	109
중세시대 (6C~ 13C)	10	20	29	6	120	188
근세시대 (14C~ 18C)	45	5	36	14	113	213
근대시대 (19C~ 20C초)	8	-	4	2	25	39
현대 (20C 후반 이후)	1	-	1	-	4	6
계	78	56	111	31	352	628

○ 세계의 걸작품 문화유산

● 타지마할(Taj Mahal, 1983)

- 개요

: 위치 - 인도의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 교외 아그라성 동쪽의 약 2km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기준 - (i)

- 설명

: 거대한 대리석 모스크로 1631-1648년 사이 당시 무굴제국의 황제인 샤자한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추념하여 세운 무덤

: 타지마할은 가장 완벽한 인도모슬렘 예술의 진주이며 세계유산이 최고 걸작품중의 하나

- 대표유적

: 능묘 - 무바즈 마할과 샤 자한 황제가 잠들어 있는 중앙 돔은 단순미의 극치이자 순백색이 주는 아름다움의 절정임

: 정문 - 타지마할은 담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깊숙한 곳에 지어졌고, 이 외곽 담장에는 네 개의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개는 가짜 문임

: 정원과 분수시설 - 직사각형으로 구획되고, 조경으로 4분된 수로와 정원, 중앙의 일자형 수로의 가운데 지점에 있는 백색 대리석의 연꽃수조가 배치되어 있음.

- 베를린과 포츠담의 궁정과 공원들(Palaces and Parks of Postdam and Berlin, 1990, 1992, 확장 1999)

- 개요

- : 위치 -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며, 포츠담은 베를린 남서쪽에 접한 브란덴부르크주의 도시

-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기준 - (i)(ii)(iv)

- 설명

- : 1730년부터 1916년까지 포츠담에는 500ha의 공원과 150개의 건물이 건립되어 하나의 예술단지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건물과 공원들은 그 후 베를린 지역까지 확장되어 하벨 제방과 글렌니케 호수에까지 이룸.

- : 산 사우치 궁전은 프레드릭2세가 1745-1757년에 만든 궁정으로 프랑스 계몽 사상가인 볼테르가 초빙되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함.

- 대표유적

- : 산 사우치(Sans souci) 궁전 -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은 산 사우치 궁전임. 프리드리히 대왕이 손수 스케치를 했다는 여름 별장으로 산 사우치는 프랑스어로 ‘근심이 없다’는 뜻임.

- : 샤를로텐부르크 궁전(Schloss Charlottenburg)-1699년 완성된 샤를로텐부르크 궁전은 베를린 시내에 남아있는 가장 큰 궁전으로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음.

-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Palaces and Parks of Versailles, 1979)

- 개요

- : 위치 - 프랑스 파리 남서쪽 베르사유

-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기준 - (i)(ii)(iv)

- 설명

- : 루이14세-루이16세가 거주했던 궁전으로 내부 장식, 조경, 건축미가 탁월함

- 대표유적

- :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3세가 1631년 사냥용 성를 지은 데서 시작됨. 베르사유 궁전은 헤라크레스, 비너스의 방과 전쟁의 방, 평화의 방, 귀족의 방

등 15개의 크고 작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킨더디지크-엘슈트 풍차망(The Mill Network at Kinderdijk-Elshout, 1997)

- 개요

: 위치 - 네덜란드 로테르담 남동부 킨더디지크-엘슈트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기준 - (i)(ii)(iv)

- 설명

: 해수면보다 낮은 국토를 네덜란드의 국토유지 노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로서 제방, 저수지, 배수지 등 관련유적이 잘 보존되었음.

- 대표유적

: 킨더디지크 풍차 19대, 네테르워드 저수지와 오버워드 저수지의 저수시스템

- 알함브라, 알바이진, 그라나다(Alhambra, Generalife and Albayzin, Granada, 1984, 1994)

- 개요

: 위치 - 스페인 그라나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기준 - (i)(ii)(iv)

- 설명

: 알함브라 요새는 13C~14C의 에미르족의 통치지역으로 장엄한 정원 풍경이 뛰어남

: 알바이진은 무어 건축의 보고로 전통적인 조화가 뛰어남

- 대표유적

: 알함브라 궁전내에는 샘의 정원, 대상의 방 아라베스크 천정, 궁전의 천정, 사자의 정원, 헤레랄리페 정원 등이 있음.

- 明·清代궁전 : 자금성(Imperial Palace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1987)

- 개요

: 위치 - 중국 베이징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기준 - (i)(ii)(iii)(iv)

- 설명

: 중국 명·청 왕조때의 궁궐고 500년 이상 최고권력의 중심지였음

: 뛰어난 정원과 가구, 예술품으로 치장된 9,000여개의 방이 있는 많은 건물들은 명·청 왕조시대 중국문명의 살아있는 증거임

- 대표유적

: 오문(남문) - 자금성의 궁전 정문에 해당하는 곳으로 높이 35.6m이다. 이곳의 통로는 5개 있으며, 가운데 통로는 황제만이 출입했다.

: 태화전(타이허텐) - 오문을 지나면 수로가 가로 지르는 넓은 뜰이 있으며, 수로 위에는 유교의 오성(유교의 덕목인 인, 의, 예, 지, 신)을 상징하는 다섯 개의 다리가 놓여 있다.

: 보화전(바오허텐) - 보화전은 자금성 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물로써 중화전 뒤편에 위치하는 건물이다.

: 중화전 - 중화전은 태화전 바로 뒤에 위치하는데 그 모양이나 기운이 모두 범상치 않은 아름다운 정자식 건축이다.

: 건천궁(간칭궁) - 주거 지역인 내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16.5m의 평평한 대리석 석비가 경계를 표시하고, 내정은 건청궁, 교태전, 곤녕궁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곤련궁(곤녕궁) - 명대에 건축된 것을 청나라 순치 12년(1655년)에 만주족의 풍습에 따라 심양 고궁에 있는 청령궁을 본 따 중건한 것이다.

●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Acropolis, Athens, 1987)

- 개요

: 위치 - 그리스 아테네 전역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기준 - (i)(ii)(iii)(iv)(vi)

- 설명

: 1천년이 넘게 오랜 기간에 걸쳐 번영해온 신화와 종교문명의 대표적 사례

: 파르테논 신전, 프로필리아(아크로폴리스 신전입구), 에레치씨엠 신전, 나이키 시전 등 고전시대 그리스 예술의 최대 걸작품들이 산재

: 이곳은 세계유산의 이상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함.

- 대표유적

: 파르테논 신전(Parthenon) - 고대 그리스의 문명과 특징을 지니고 있는 도리스식 신전의 극치를 나타내는 걸작이다.

: 에레크테이온(Erechtheion) - 에레크테이온 등 3위의 신을 모신 내실과 전설상의 왕 큐크로푸스의 묘를 한 곳에 수용하기 위해 BC 420년에 지어졌다.

: 니케 신정(The Temple of Athena Nike) - 아테네의 수호자이신 전쟁의 여신 아테네에게 바쳐진 것으로 BC 420년에 완공되었다.

: 프로필라이아(Propylaea) - 아크로폴리스의 입구 기념물로 건축가 무네시클레스에 의해 설계되어 BC 437 ~ BC 432년 기간에 완성되었다.

3)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현황4)

① 등재개요

○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 한국은 1988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95년 1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종묘,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전이 등재되었고, 이어 수원 화성, 창덕궁이 제21차회의 (1997년 12월 1일~6일, 나폴리)에서 등재되었다. 2000년 12월 제24차회의 (Cairns, Australia 개최)에서 경주 역사지구와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이 등재됨으로써 2005년 12월까지 총 7곳의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② 등재 현황

○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등재현황

• 창덕궁(The Changdeokgung Palace Complex)

- 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

: 국내지정사항 - 사적 제122호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일 - 1997년 12월

4) 임근욱 외(2007) 관광과 세계문화유산, 새로미에서 요약정리.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기준 - (ii)(iii)(iv)

- 설명

: 조선3대 태종 5년(1405년)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어진 궁궐

: 1610년 광해군 때부터 정궁으로 쓰이게 된 뒤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복원할 때까지 258년 동안 조선의 역대 왕들이 정사를 보살폈던 법궁

: 돈화문, 선정전, 인정전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조원시설인 후원이 유명하다.

- 세계유산적 가치

: 동아시아 궁전 건축사에 있어 비정형적 조형미를 간직한 대표적 궁으로 자연스런 산세에 따라 산세에 의지하여 인위적인 건물을 자연의 수림 속에 포근히 자리를 잡도록 한 배치는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완전한 건축의 표상이다.

: 또한, 왕들의 휴식처로 사용되던 후원은 300년이 넘는 거목과 연못, 정자 등 조원시설이 자연환경과의 완벽한 조화와 배치가 탁월하여 건축사적으로 또 조경사적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수원화성(Suwon Hwaseong Fortress)

- 개요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 국내지정사항 - 사적 제3호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일 - 1997년 12월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기준 - (ii)(iii)

- 설명

: 조선 22대 왕인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화산으로 옮긴 후 축조한 성으로 둘레는 5,744m, 면적인 130ha이다

: 축성시 거중기, 녹로 등 신기재를 사용

: 화성은 중국, 일본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산성의 형태로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의 기능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동양 성곽의 백미라 할 수 있다.

- 세계유산적 가치

: 18세기에 완공된 짧은 역사의 유산이지만 동서양의 군사시설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서 방어적 기능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약 6km에 달하는 성벽안에는 4개의 성문이 있으며 모든 건조물이 각기 모양과 디자인이 다른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 1801년에 발간된 “화성성역의궤”에는 축성계획, 제도, 법식뿐 아니라 동원된 인력의 인적사항, 재료의 출처 및 용도, 예산 및 임금계산, 시공기계, 재료가 공법, 공사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성곽축성 등 건축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 석굴암과 불국사(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 개요

- : 위치 - 불국사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 : 위치 - 석굴암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891

- : 국내지정사항 - 불국사 : 사적 및 명승 제 1호

- : 국내지정사항 - 석굴암 : 국보 제 24호

-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일 - 1995년 12월

-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기준 - (i)(iv)

- : 소장문화재

- (1) 불국사 : 다보탑(국보 제20호), 석가탑(국보 제21호), 연화교와 칠보교(국보 제22호), 청운교와 백운교(국보 제23호), 비로자나불(국보 제26호), 금동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7호) 등

- (2) 석굴암 : 석굴암본존불(국보 제24호), 석굴암 삼층석탑(보물 제911호)

- 설명

- : 경주 토함산 중턱에 위치한 8C경 석불로 내부 본존불상은 결가부좌한 채 동해바다를 응시하고 있다.

- : 석굴 내부 벽면에는 11면 관음보살을 비롯한 보살과 10대 제자들이 매우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극동 불교 예술의 진수

- : 불국사는 석굴암과 같은 시기인 752년에 건립된 것으로 종교 건축의 예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세계유산적 가치

: 석굴암은 신라시대 전성기의 최고 걸작으로 조영계획에 있어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유산이며, 불국사는 불교교리가 사찰 건축물을 통해 형상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아시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건축미를 지니고 있는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품이다.

● 해인사 장경판전(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the Depositories for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 개요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 국내지정사항 - 국보 제 52호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일 - 1995년 12월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기준 - (iv)(vi)

: 소장문화재 - 대장경판 81,258판(국보 제32호), 고려각판 2,725판(국보 제 206호), 고려각판 110판(보물 제734호) 등

- 설명

: 가야산 해인사에는 1237~1249년까지 제작된 불교경전의 결집체인 8만여장의 대장경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 장경판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관 시설로서 보존기술과 장치가 과학적으로 설계된 15C의 뛰어난 건축물이다.

- 세계유산적 가치

: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오랜 역사와 내용의 완벽함, 그리고 고도로 정교한 인쇄술의 극치를 엿볼 수 있는 세계 불교경전 중 가장 중요하고 완벽한 경전이며, 장경판전은 건물의 의장을 하지 않고도 매우 간결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통풍의 원활, 방습의 효과, 실내 적정 온도의 유지, 판가의 진열 장치 등 판전으로서 필요로 하는 기능만을 매우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충족시켜 대장경의 부식을 방지하고 온전한 보관을 위해 15세기경에 건축된 건축물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보존과학 소산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종묘(Jongmyo Shrine)

- 개요

- : 위치 - 서울 종로구 훈정동
- : 국내지정사항 - 사적 제 125호
-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일 - 1995년 12월
-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기준 - (iv)
- : 소장문화재 - 정전(국보 제227호), 영녕전(보물 제821호), 종묘제례악(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등

- 설명

- :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후의 신위를 모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있는 유교적 전통 신전
- : 종묘의 건축은 16C이후 현재까지 원형을 잘 보존유지하고 있으며 종묘제례는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제례의식으로서 14C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전통이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 세계유산적 가치

- : 종묘는 조선시대의 전통건물로서 일반건축이 아닌 신전건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많은 현대 건축가들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종묘의 뛰어난 건축적 가치는 동양의 파르테논이라 칭하여지고 있을 만큼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

● 경주역사유적지구(Gyeongju Historic Areas)

- 개요

-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
-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일 - 1990년 12월
-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기준 - (ii)(iii)
- : 소장문화재
 - (1) 남산지구 : 보물 13점, 사적 12점, 지방유형문화재 11점, 지방 문화재 자료 2점 등
 - (2) 월성지구 : 경주 첨성대(국보 제31호), 경주월성(사적 제16호), 경주임해전지(사적 제18호), 경주 계림(사적 제19호), 내물왕릉, 계림, 월성지대(사적 및 명승 제2호)
 - (3) 대능원지구 : 경주노동리고분군(사적 제38호), 경주노서리고분군(사적 제39호), 경주황남리고분군(사적 제40호), 동부사적지대(사적

제 161호), 신라오릉(사적 제172호), 신라 미추왕릉(사적 제 175호), 매정(사적 제246호)

(4) 황룡사지구 : 분황사 석탑(국보 제30호), 황룡사지(사적 제 6호)

(5) 산성지구 : 명활산성(사적 제47호)

- 설명

: 신라시대 천년의 문화적 업적과 불교 및 세속건축의 발달을 보여주는 뛰어난 유적임

- 세계유산적 가치

: 경주역사유적지구(Gyeongju Historic Areas)는 신라천년(B.C 57 - A.D935)의 고도(古都)인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있는 불교유적, 왕경(王京)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일본의 교토, 나라의 역사유적과 비교하여 유적의 밀집도, 다양성이 더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된다.

●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Gochang, Hwasun and Ganghwa Dolmen Sites)

- 개요

: 위치 - 화순 고인돌 유적 :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춘양면 대신리

: 위치 - 고창 고인돌 유적 : 전라북도 아산면 죽림리 및 도산리

: 위치 - 강화 고인돌 유적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및 삼거리, 내가면 오상리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일 - 1990년 12월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기준 - (iii)

: 소장문화재

(1) 화순고인돌유적 :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고인돌군(사적 제410호)

(2) 고창고인돌유적 : 고창고인돌군(사적 제 391호), 도산리고인돌(전라북도기념물 제49호)

(3) 강화고인돌유적 : 강화고인돌(사적 제137호), 내가고인돌(인천광역시기념물 제16호), 강화 대신리고인돌(인천광역시기념물 제31호), 강화 부근리 점골고인돌(인천광역시기념물 제32호)

- 설명

: 기원전 2~3천년전의 장례 및 의식유적을 만들어냈던 선사시대 기술 및 사회

발전을 생생히 보여주는 뛰어난 유적

- 세계유산적 가치

: 고창·화순·강화 고인돌군과 같이 기원전 2~3천년전 선사시대의 기술적·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 무덤과 의식의 거석기념물은 세계적으로 생생하게 남아 있는 곳이 없다.

: 고인돌 축조의 제작과정을 알 수 있는 곳으로 대형 고인돌뿐만 아니라 좁은 지역에 수많은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세계적으로 탁월한 가치가 있으면 인류 공동의 재산이라 할 수 있다.

④ 공주역 관련 테마의 분석과 제안

① 테마의 분석개요

- 백제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공주, 부여, 익산 지역의 백제 유적들의 유형과 특징 및 가치 등을 유형화
- 전 세계적으로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서 백제유적지구와 연계가 가능하고, 국내에 잘 알려진 세계유산의 유형과 특성 자원을 발굴
- 한국에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역사유적들 중에서 백제유적지구와 상호 연계가 있는 자원의 유형과 특징자원을 발굴

② 테마의 도출과정과 분석

-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 자원의 테마도출
 - 공주지역의 세계유산 자원
 - : 공주의 세계유산자원은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으로 산성과 산성내 건축물 등의 유적과 무령왕릉 등의 고분군이 등재됨
 - : 공산성내의 유적에 대한 백제인의 삶과 전투에 대한 콘텐츠 및 송산리의 무령왕과 타 왕릉에 대한 왕들의 업적과 행적의 콘텐츠를 테마로 활용

- 부여지역의 세계유산 자원

: 부여의 세계유산자원은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과 나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 등으로 백제왕궁터와 산성의 유적과 왕릉, 사찰터로 종교유적 등이 등재됨

: 이에 백제왕궁과 주거지역을 통한 백제인의 생활과 전쟁에 대한 콘텐츠 및 능산리의 왕릉에 대한 왕들의 업적과 행적, 정림사지 등의 종교유적의 콘텐츠를 테마로 활용

- 익산지역의 세계유산 자원

: 익산의 세계유산자원은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로 백제왕궁과 미륵사지 종교 유적이 등재됨

: 이에 백제왕궁과 백제인들의 주거지역을 통한 백제인의 생활상과 미륵사지의 종교유적의 콘텐츠를 테마로 활용

○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원의 테마도출

- 석굴암과 불국사 세계유산

: 석굴암과 불국사는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유산으로 불교적 종교콘텐츠와 건축미와 조형미의 콘텐츠를 백제유적지구 종교유적과 비교한 테마로 활용

- 경주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 경주역사유적지구는 남산지구, 월성지구, 대능원지구, 황룡사지구, 산성지구 등이 등재되어 불교유적과 왕궁 및 왕릉 등 왕과 신라인의 주거, 산성의 전쟁 등 관련 유적지의 콘텐츠를 비교한 테마로 활용

○ 해외의 세계유산 자원의 테마도출

- 왕궁 및 왕릉 관련 세계유산자원

: 인도의 타지마할, 베를린과 포츠담의 궁정과 공원들,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 알함브라·알바이진·그라나다 등은 서양의 왕궁과 능묘 등과 관련된 비교 콘텐츠 테마로 활용

: 명·청대 궁전 : 자금성은 중국의 왕조를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동양의 왕궁을 비교하는 콘텐츠를 테마로 활용

- 종교 관련 세계유산자원

: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신화와 종교문명을 대표하는 세계유적으로 종교유

적의 콘텐츠를 테마로 활용

③ 공주역의 테마설정 제안

○ 대주제 및 역사명칭 : ‘세계유산’ 공주테마역 문화관광플랫폼 역사로 개발

- 대주제를 ‘세계유산’을 테마로 활용

: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테마를 도입

: 국내외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테마로 도입

- 공주역사 명칭의 보완

: 공주역이라는 기존명칭에 세계유산 등재의 브랜드를 강화함

: 기존 공주역의 앞머리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명기하여 사용

- 제안명칭 :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역

○ 시설 및 공간도입

- 공주역사 내부와 외부

: 철도청 고유 기능의 사무실과 내부통로를 이용한 시설 및 공간을 활용

: 안내서비스 및 예약시설 및 공간, 기념품 판매 등

- 공주역사 고속철도 하부공간

: 역사외부의 철도하부공간을 이용한 문화관광시설과 공간을 활용과 외부벽면 및 빈공간을 백제테마역사 분위기로 연출

: 고속철도 하부공간을 활용한 회의시설 및 복식체험 등 시설공간 도입

- 공주역사 주차장 연계 부지

: 공주역사 주차장 이외의 가용지에 공주역 세계유산 테마왕국을 조성

: ‘세계유산 백제테마왕국’의 조성은 미니어처형의 교육 및 문화콘텐츠 공간과 체험시설 및 공간을 도입

○ 스토리텔링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 세계유산 콘텐츠의 접근 방향

: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왕궁과 관련된 왕, 전쟁과 전투, 종교적 사건 등을 주제로 하는 스토리텔링과 프로그램을 개발

: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공간의 구성과 체험프로그램은 만화적 요소와 결합시킨 콘텐츠 상품화와 연계하여 발굴 및 운영

- 공주테마역 스토리텔링화 방안
 - : 주차장 연계 부지는 ‘세계유산 백제만화왕국(World Heritage Baekje Cartoon Kingdom)’의 테마마을로 조성
 - : 부지내 도입시설과 공간은 세계유산 왕궁과 왕, 전쟁과 전투, 종교적 사건 등을 주제로한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미니어처(소인국) 및 만화형 레고모형 마을을 조성
- 백제역사체험 및 역사지구 여행프로그램
 - :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한 백제복식여행이나 백제인과 함께하는 도슨트 백제체험여행 프로그램 운영
 - : ‘세계유산 백제만화왕국(World Heritage Baekje Cartoon Kingdom)’으로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변의 공주, 부여, 익산을 연계되는 백제역사여행프로그램 운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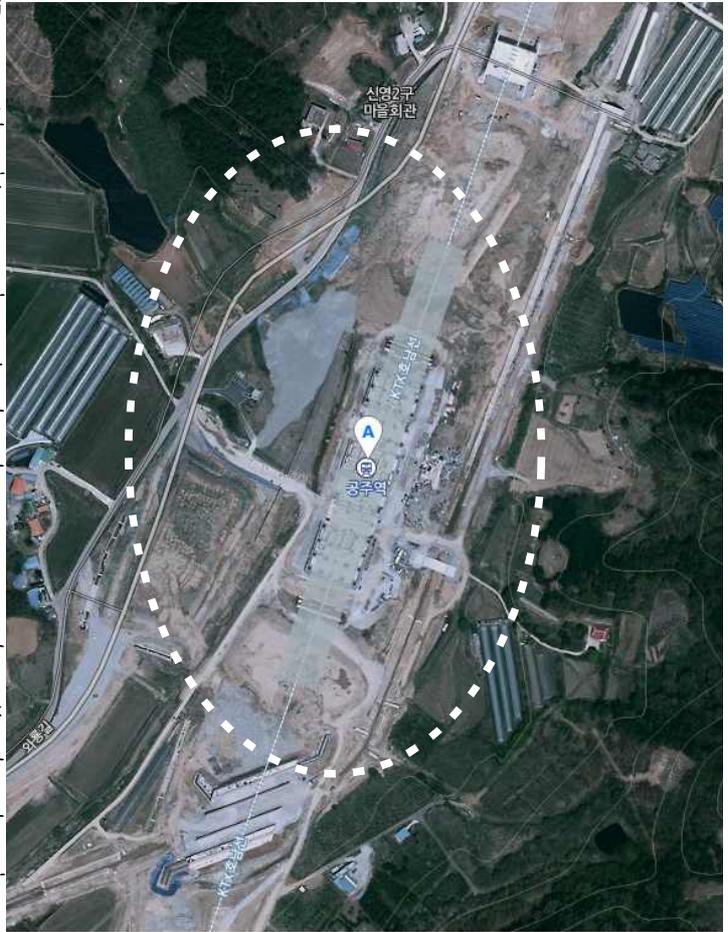
공주역 현황분석과 활용 기본구상 및 추진방안

1) 공주역사 내외부 시설과 공간 분석

① 외부부지 현황분석

■ 역사 및 주차장

- 공주역은 공주역사가 건립되고 있고, 바로앞 전면에 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앞으로 주차장 및 연계한 부지가 조성되어 있음.
- 그리고 역사 옆 철로의 하부공간은 현재 회의실이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공간은 빈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이에따라 공주역을 테마역으로 조성할 경우 역사내부와 전면의 광장, 주차장 및 연계부지, 철도하부공간 등 총 4개의 공간이 도입가능별로 시설과 공간활용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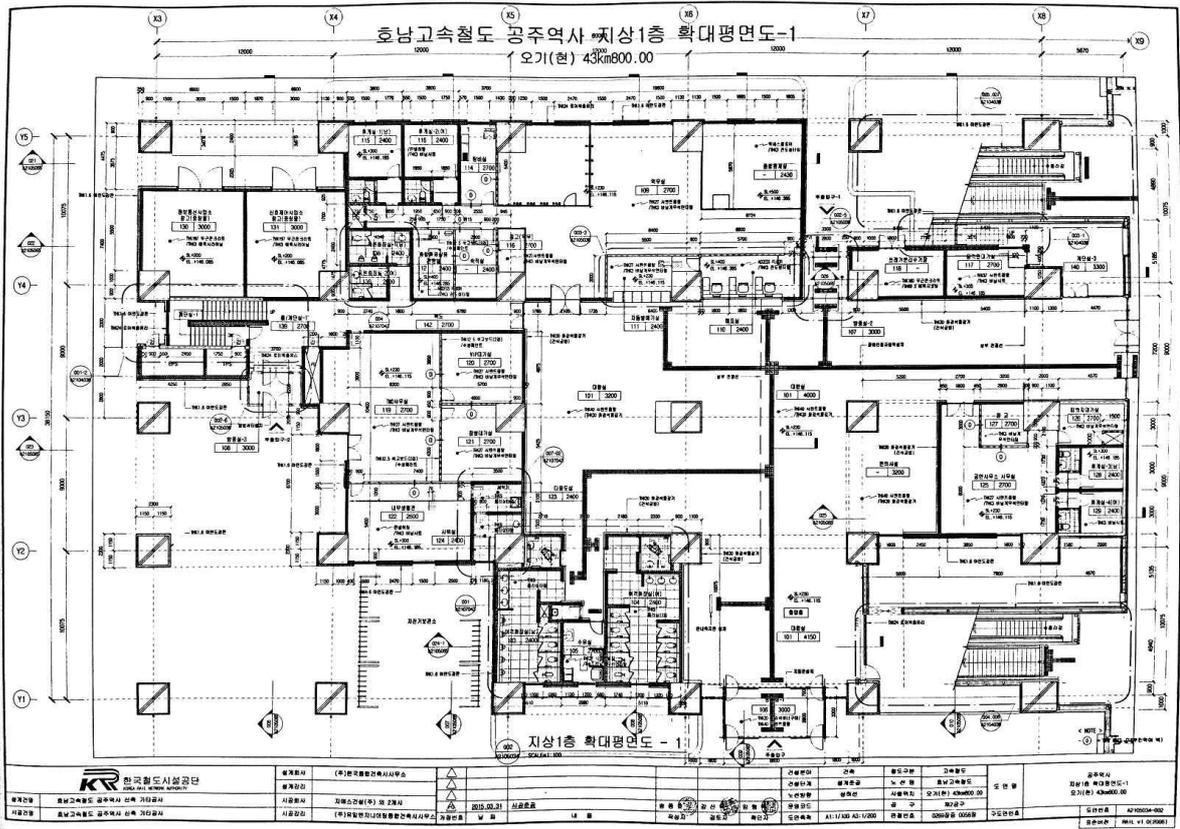
공주역사 위성영상

■ 공주역사 배치도

- 다음의 공주역사 배치도를 살펴볼 때 활용이 가능한 4개의 역사내부와 전면의 광장, 주차장 및 연계부지, 철도하부공간 등의 위치는 다음그림과 같음.

② 공주역사 내부실내 공간 분석

- 공주역사의 내부공간은 여객시설과 역무시설, 설비시설, 공안사무실, TMO, 공용시설, 창고, 시설관리를 위한 통합사무실 등이 총 4,457㎡임
- 따라서 공주역사 내부공간의 대합실의 편의시설 및 여유공간을 활용한 공간활용만이 가능할 것으로 충분한 공간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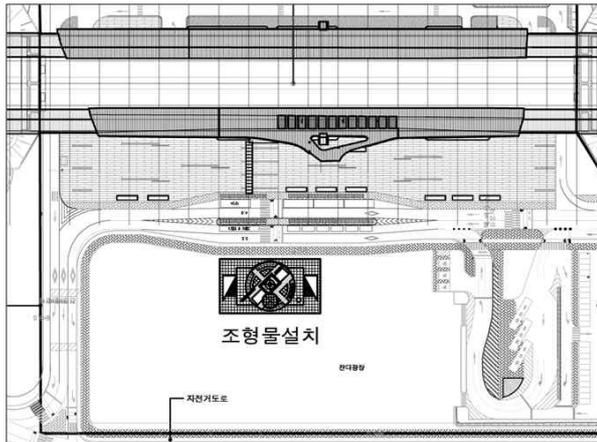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실별면적표
오기(현) 43km800.00

□ 실별 면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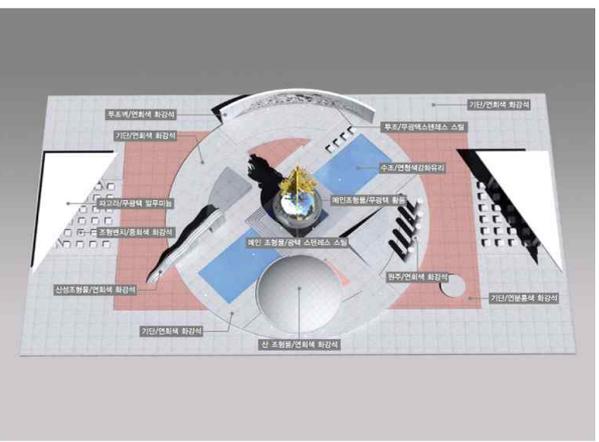
구분	내 용	실별면적(㎡)	비 고
여객시설	대합실	623.26	
	여객화장실	111.10	
	수유실	12.61	
	편의시설	54.90	
	경통실	39.82	
소 계	841.69		
역무시설	매표소	20.70	
	지명발매기실	19.20	
	직원대응실(승객대응)	206.45	
	휴게실(남/여)	41.04	
	방화실	13.80	
	숙직실	13.92	
	통합운영실/컨트롤실	13.95	
	음악원대기실	17.82	
	복도-1,2	41.62	
	쓰레기수거장	21.12	
소 계	609.52		
설비시설	소화장비실	15.76	
	전기실	288.16	
소 계	303.92		
공안사무실	공안사무소 사무실	57.70	
	휴게실(남)	13.71	
	휴게실(여)	13.71	
	회복후대기실	15.80	
소 계	111.31		
TMO	방화대기실	112.23	
	방화실	30.92	
	TMO 사무실	72.54	
	대합도심/사무실	18.90	
	VIP 대기실	28.36	
	내방화장실	45.90	
소 계	213.84		
공용시설	물/계단실-1	45.69	
	물/계단실-2	30.69	
	물/계단실-3	53.76	
소 계	130.34		
합 계	신용사사무소 창고	51.06	
	방화물신사무소 창고	51.00	
	관리사무소 창고	46.75	
	시설사무소 창고	44.65	
	소 계	193.52	
	통합사무실-1	296.58	
	휴게실(남)-2	82.12	
	휴게실(여)-2	21.21	
	물/계단실-1	13.00	
	직원화장실	12.40	
	복도	37.43	
	신용사사무소 창고	272.53	
	주요실	154.57	
소화장비실	28.00		
통합운영실/컨트롤실	171.52		
소화장비실/방화실	80.91		
방화실	207.00		
관리실	42.49		
직원사무실	9.25		
화장실-1	10.34		
물/계단실-1	14.54		
물/계단실-1	33.66		
소 계	1,469.55		
통합사무실-2	207.02		
휴게실(남)-3	61.78		
직원화장실	15.51		
물/계단실-2	20.25		
화장실	42.79		
직원사무실	11.59		
화장실-2	10.35		
복도	34.42		
화고-2,3	65.05		
간실	7.01		
물/계단실-2	51.38		
소 계	528.06		
역 시설 합 계	4,457.22		

③ 공주역 광장 조형물 분석

- 공주역 상징조형물은 역사의 바로 앞 광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형물 설치 주변을 이용한 쉼터기능과 안내정보의 제공 기능공간과 판매시설 등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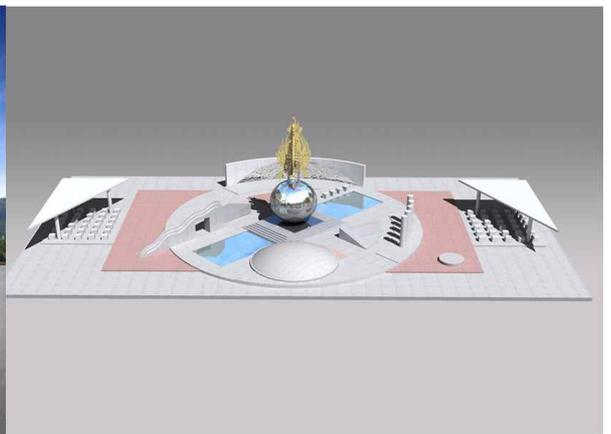
조형물 배치계획



조형물 배치도



조형물 측면도



조형물 정면도

공주역 광장 조형물 설치계획

구분	내용
사업명	공주시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사업
장소	충남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167-1 공주 KTX 역사 내
작품명	공주시 상징조형물 “공주여 영원하라”
크기	가로 40m×세로 22m × 높이 11m
재료	화강석+오석+황동+스텐레스 스틸+강화유리+알루미늄+LED조명
사업비	1,425백만원
발주처	공주시
작가	목원대학교 조소과 교수 이창수

② 공주테마역 조성 기본구상

① 공주역 명칭 관련 활용

■ 역사명칭 :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역

- 철도역으로서 역사명칭은 타지역의 명칭과 같이 공주역을 사용하되, 세계유산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의 로고를 활용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역’으로 명명



■ 테마공간명칭 : 세계유산 백제만화왕국(Baekje Cartoon Kingdom)

- 철도역앞의 주차장 연계부지는 만화테마파크를 미니어형 소인국 형태의 만화마을로 조성하고, 테마공간의 명칭을 ‘세계유산 백제만화왕국(World Heritage Baekje Cartoon Kingdom)’을 명명

세계유산 백제만화왕국
(World Heritage Baekje Cartoon Kingdom)

② 공주역 테마와 관련된 문화관광기능 강화

■ 백제세계유산 관련 철도테마역 조성

-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포함한 세계유산의 왕과 왕궁, 전쟁과 전투, 종교적 사건과 유적 등을 주제로 하는 만화테마파크를 미니어형 소인국 형태와 레고형 만화마을로 조성
- 현대인들의 수요에 맞는 만화와 캐릭터, 영상게임과 드라마, 모바일게임, 만화동호인들의 교류와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과거의 세계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

■ 백제유적 체험관광안내 및 예약

- 공주테마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종합안내 및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제유적지구 관광코스과 루트, 체험관광상품 등을 안내하고 예약 추진
- 특히, 백제인들의 복식을 구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착복을 하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대여하고, 백제인 도슨트와 함께 백제유적지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을 운영
- 또한, 백제유적지구의 백제유적과 관광지, 숙박시설, 향토음식점, 농촌체험 등을 관광객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축하고, 안내 및 예약사업을 추진

■ 회의철도역으로 활성화

- 공주역은 수도권과 호남을 연결하는 중부권의 역사로서 철도를 이용하여 회의와 관광을 병행하는 겸목적의 업무와 관광을 할 수 있는 회의와 세미나를 위한 회의철도역으로 조성
- 철도역의 회의실 또는 세미나 공간은 역사의 옆 철도하부공간에 현재 회의실보다 확대된 일정 규모의 회의실 시설을 건립하여 세미나뿐만 아니라 백제체험 등 다용도의 공간으로 활용

■ 백제역사문화 및 지역문화 교류와 특산물 판매 추진

- 공주역사의 테마역 활성화는 철도청과 충청남도 및 공주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단체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므로 테마공간과 광장 등을 활용한 백제역사문화 및 지역 전통문화의 교류공간 확보와 연계 행사를 추진
- 나아가 철도역사와 외부공간을 활용한 지역특산물의 판매와 테마공간내 전통음식의 판매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단체 참여를 촉진

③ 백제만화왕국 관광열차 운행과 역사체험 관광코스 운영

■ 철도여행상품으로 백제만화왕국 관광열차 운영

- 철도역내에서 만화를 통한 세계유산과 역사에 대한 시청각 교육, 백제유적지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 역사에 대한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차운행중 만화와 캐릭터 등을 통한 재미있는 관광열차를 운영
- 이를 위해 세계유산과 관련된 만화와 국내 세계유산 관련 만화와 캐릭터 등을 수집해 철도여행시 다양한 체험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역사교육과 만화와 함께 하는 여행의 재미를 제공

■ 백제유적지구 역사체험 관광코스 상품 운영

- 현재의 백제복식을 대여한 여행상품 계획을 우선 추진하면서 이를 확대하여 ‘백제인과 함께하는 백제인 도슨트 여행상품’을 운영하면서, 도슨트를 위한 백제역사해설사 양성을 병행
- 백제유적지구 여행상품은 1차적으로 철도여행관광객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단체 및 자가용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 코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백제유적지 연계 관광프로그램과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
- 여행상품은 철도를 이용하는 수학여행 학생과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공주와 부여를 대상으로 세계유산과 백제유적을 테마로 하는 만화콘텐츠와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운영

④ 백제만화왕국 테마역 스토리텔링 구상

■ 백제왕도와 세계유산 왕궁과 왕 관련 스토리텔링

- 백제시대의 왕과 관련된 유적과 역사적 업적 및 사건 등이 다양하므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관련 유산에 대한 왕궁과 왕에 대한 콘텐츠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으로 구성
- 이를 위하여 백제만화왕국 테마지구내 각 유형별 미니어처의 구성과 연계프로그램, 만화체험과 캐릭터 및 게임개발, 기념품 제작 등을 추진
- 특히, 이를 공주지역과 연계하여 활성화시키고 스토리텔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주의 한국영상대학과 현지의 만화작가와 캐릭터 제작자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하여 운영

■ 전쟁 및 전투관련 스토리텔링

- 백제유적지구와 세계유산에서 성곽 및 왕과 관련된 유적중에서 전쟁·전투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은 최근의 컴퓨터 게임산업 및 모바일웹 게임(웹툰) 등을 연계하는 스토리텔링을 개발
- 이를 위해 백제만화왕국 테마지구내 만화&게임센터를 건립하여 실질적인 만화와 게임제작 등의 작업을 추진하고, 이를 관광객들이 실제 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계

■ 종교유적 및 사건 관련 스토리텔링

- 백제유적지구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교유적은 사찰 등 불교유적으로 서

양의 신화와 기독교적인 종교유적과 관련된 만화와 영화·영상 등을 연계하는 스토리텔링을 개발

③ 시설배치 종합구상

① 철도역사 내부

■ 백제테마역 환경조성과 관광플랫폼 구축

- 실내 백제문양 벽체 그래픽 디자인 보강
- 백제풍경 배너 및 사진연출
- 외부벽체 및 건물 백제문양 그래픽 디자인 보강

■ 관광안내소와 홍보관 설치 및 예약시스템 구성

- 관광안내소
- 관광홍보관
- 관광기념품 및 특산물판매점
- 관광편의점

② 철도역사 외부 하부공간

■ 회의시설 및 다용도실

- 대회의실
- 소회의실
- 분임토의실
- 다용도실

■ 실내공연장 및 영상실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만화영상홍보실

③ 철도역 광장

■ 야외휴게쉼터 및 포토존

- 휴게실
- 야외쉼터
- 포토존

■ 기념품 및 만화캐릭터 판매점

- 기념품점
- 만화캐릭터점
- 패스트푸드점

④ 주차장 및 연계부지 : 백제만화왕국(Baekje Cartoon Kingdom)

■ 세계유산미니어처존

- 베르사이유, 타지마할, 알함브라, 자금성 청·명대 궁전 등
-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신전 등

■ 한국세계유산미니어처존

- 경주유적지구 :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등

■ 만화&웹툰존

- 세계유산 왕궁 및 왕 관련 만화
- 전쟁 및 전투 만화
- 종교만화
- 만화&웹툰센터

4 사업의 추진방안

① 제안사업 추진방향

■ 세계유산과 백제유적지구의 콘텐츠를 만화&영상과 융복합

- 백제유적지구의 왕릉과 왕, 전쟁과 전투, 종교유적 테마를 세계유산 동일 콘텐츠를 만화&영상, 웹툰, 캐릭터 등의 테마역으로 개발

■ 시설공간은 철도역사 내외부, 철로하부공간, 광장, 주차장 연계부지 등 기존공간을 활용

- 공주테마역은 철도내외부에 환경조성과 시설공간의 활용, 철로하부 빈공간을 활용한 회의시설 조성, 광장내 휴게판매시설, 주차장 연계부지의 세계유산 관련 미니어처존과 만화&영상존 등을 도입

■ 사업추진은 공공과 철도공사, 민간사업체, 단체, 지역주민 등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

- 사업추진주체는 충청남도과 공주시 등의 공공기관, 철도공사와 관련 여행사, 민간기업체, 지역내 각종 단체, 지역주민 등의 공동참여로 투자 및 운영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추진

② 제안사업의 역할분담

■ 공공 : 충청남도과 공주시

- 백제유적지구 연계 관광코스 운영, 복식체험 및 도슨트관광 상품 운영(사회적 기업 연계), 관광안내소 및 홍보관 운영, 야외휴게쉼터 설치 및 운영, 만화&영상센터 설치 및 운영 등

■ 철도공사

- 백제만화왕국열차 상품 운영, 역사내부 및 외부공간 환경조성, 회의시설 및 영상실,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야외휴게쉼터 및 기념품판매점 설치 임대, 포토존 등

■ 민간기업, 지역단체, 지역주민

- 백제만화왕국미니어처지구 조성(민자사업), 관광특산물과 기념품점, 관광편의점, 만화&캐릭터판매점, 도슨트프로그램 운영, 전통문화행사 공연 등

참고문헌 및 자료

- 정봉현(2009, 가을호), “고속철도역의 역세권 개발실태와 발전방향”, 광주연구.
- 임근욱 외(2007), 관광과 세계문화유산, 새로미.